

임정 작가의 «울릉도» 출판기념회 / 작가와의 만남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동료들과 교사 연수를 온 여자. 그녀는 그곳에서 젊은 날의 첫 사랑을 만나게 된다. 세상의 관능,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시성, 자연의 야성적 아름다움 속에서 그 사랑은, 단지 육체적 쾌락 뿐 아니라 존재를 초월하고 영적 환희에 도달하기 위한 오랜 여정의 첫 발걸음이 된다...’

오는 3월 12일, 소개될 소설 ‘울릉도’의 이야기이다. 주프랑스 문화원(원장 이종수)과 갈릴레(Galilée) 출판사에서 소개하는 ‘울릉도’는 작가이자 조각가인 임정의 첫번째 소설로, 총 5 부작으로 구성될 ‘창작소설 시리즈(Roman de la création)’의 첫 단원이다.

독자들은 이 소설을 읽으며 곧 ‘성’과 ‘창의성’, ‘물질성’과 ‘정신성’이 긴밀히 맞물려 일어나는 사건들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임정 작가는 프랑스로 소설을 쓰는 몇 안 되는 한국 작가이기도 하다.

본 행사는 갈릴레 출판사 대표 Jean-Marie Touratier와 Agnes Rauby가 소개, 낭독할 예정이다.

"En ce moment extrême où le plaisir me vrillait la chair, une lumière me foudroya le corps et, avec une déconcertante fulgurance, je fus libérée de tout ! C'était comme d'avoir franchi les frontières de mon corps, d'être passée de l'autre côté de la vie, d'adhérer à la figure vivante de l'univers. J'eus l'impression de toucher la substance même de mon être, de découvrir sa place dans l'ordre de l'infini et d'apercevoir une partie de son abîme." - Jung Lim

www.romandelacreation.com

- 일시 : 2014년 3월 12일, 18시30분
- 장소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2 avenue d'Iena 75016 Paris
- 문의 : 01 4720 8386